



▲ 8월 23일, 뉴욕 광역권에서 온 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브루클린 8번가에서 퍼레이드를 했다. 행진은 주요 중국인 상업지구를 종단했다. 길을 따라 많은 중국인 가정과 주민이 관람하였다. 70대인 린(林) 씨는 1997년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생활을 한 지 거의 30년이 됐다. 그는 감격하며 말했다. “이 퍼레이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린 씨는 자신의 부모님도 일찍이 중국에서 정치 운동이 초래한 박해를 겪었기에, 신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절실히 공감한다며 생전에 중국인들이 진정으로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9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557만 1700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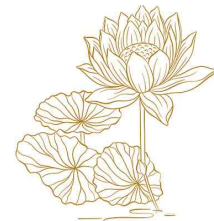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05期(2026.08.28) WWW.MINGHUI.ORG

한글판 1069호 minghui.or.kr



▲ 8월 22일, 영국 파룬궁수련자들은 런던 도심에서 성대한 퍼레이드를 열었다.

주요 내용

【수련】천목(天目)으로 본 것: 악을 행한 자의 업보와 출구

【수련】‘진(眞)’을 닦는 데 공을 들이다

【수련】수련생 구출 과정에서의 신기한 일, 산산조각 났던 뼈가 다시 맞춰지다

【문화】굽이치는 장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1

■ 수련교류

천목(天目)으로 본 것: 악을 행한 자의 업보와 출구 14

‘진(眞)’을 닮는 데 공을 들이다 20

수련생 구출 과정에서의 신기한 일, 산산조각 났던 뼈가 다시 맞춰지
다 28

진실한 마음으로 수련하다 33

‘알고 보니 원고 쓰는 과정은 이렇게 오묘했구나’ 43

교류 원고를 쓰며 얻은 수확에 대해서 말하다 48

■ 문화예술

굽이치는 장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51

역사의 시대 구분을 통해 진정한 중화문명을 인식하다 56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다. 대도에서 분열돼 나온 유가(儒家) 전승은 상고 시대 예악(禮樂)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체계를 이었으며, 중화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전승 방식이다. 그래서 공자(孔子)가 서당을 열어 제자를 가르친 것은 그 후 중화가 상고 문화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다. 만약 공자가 서당을 열어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시간을 24절기 중 하지(夏至)에 비유한다면 이번 중화 문명의 전체 시간을 추산할 수 있다.

공자가 서당을 열어 제자를 가르친 시간에 관해 사기(史記) 기록을 결합해 추산해 보면 기원전 522년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공자는 당시 29세였다. 그가 수천 년의 관례를 깨고 민간 학자의 신분으로 사학(私學)을 연 것은 사실 일정한 압력을 견뎌야 했고, 현실의 검증도 거쳐야 했다. 1년간의 노력 끝에 그의 사학은 널리 인정받았으며 마침 30세가 됐다. 그래서 공자에게 있어서는 서른에 뜻을 세운 ‘이립(三十而立)’인 것이다.

만약 이상의 종점과 중간점에 근거해 추산한다면, 이번 문명 주기의 구체적인 길이는 5028년이고, 시작점은 기원전 3037년이며, 종점은 서기 1992년이다. 설명이 필요한 점은 이상의 시작점(기원전 3037년)이 반드시 염제(炎帝) 시조가 즉위한 시간은 아니며, 끝나는 시점(서기 1992년)도 중공 붉은 왕조가 붕괴되는 날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두 시간은 단지 문명 발전 과정의 전환점일 뿐이다.

측면에서 1년의 춘하추동과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 밤은 비슷한 논리 구조와 운행 방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동형 패턴으로 5천 년 문명의 전반적인 과정을 분석해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이것을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대조해보면 그 패턴이 적용 가능한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증하고 연구할 수 있다.

문명 단계의 길이에 관해서는 기존 전승을 참고할 수 있다. 중화 문화는 상하 5천 년으로, 대략 5천 년을 하나의 완전한 단계로 삼는다. 이 5천 년의 구체적인 길이는 얼마인가? 시작점과 종점은 어디인가? 우리는 먼저 종점을 확정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중공)이 1989년에 일으킨 천안문 학살은 중화 역사상 가장 어두운 페이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널리 전해지기 시작해 ‘진선인(眞·善·忍)’ 우주의 최고 특성을 인류에게 알려주었다. 수십 년의 험난하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파룬따파는 세간에 이미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이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다. 파룬따파는 1992년에 공개적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은 ‘추배도(推背圖)’에도 예언돼 있는데, 제40상 고괘(蠱卦)의 송(頌)에 “나를 낳은 자는 원숭이요 나를 죽인 자는 독수리다(生我者猴死我雕)”라고 했다. 이는 파룬따파가 1992년 임신년(壬申年) 원숭이해에 전해진 것을 말한다. 이 역사적 순간은 1년 24 절기 중 ‘동지에 일양이 생겨나는 것(冬至一陽生)’과 같아 새로운 문명의 시작점이다. 당연히 이전 문명 주기의 종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또한 5천 년 문명의 중간점을 찾을 수 있다. 중화문화는 원래 대도(大道)에 대한 전 사회적 신앙을 기초로 삼았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 대도가 분열되고 백가쟁명(百家爭鳴)하는 국면이 형성

■ 해외 종합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8월 23일, 2026년 영국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 교류회가 런던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영국 각지에서 온 대법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학비수(比學比修)하며, 각자의 일상생활, 가정환경 및 각종 진상 알리기 항목에서 어떻게 법을 스승으로 삼고 안으로 찾으며, 관념을 돌파하고 매 일념을 순수하게 했는지에 대한 수련 과정을 교류했다. 장기적으로 형성된 속인의 관념을 돌파하는 것부터 중국공산당(중공) 스파이의 현실적인 교란을 해체하는 것, ‘자기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병업 고비 속에서 새 생명을 얻기까지, 발표자들은 자신의 생생한 경험으로 증명했다. 뿌리를 법에 내리고 매 일념을 잘 수련하기만 하면 넘지 못할 고비가 없다는 것이다. 피부색과 민족이 다르고 수련 궤적은 다르지만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법광(法光) 속에서 하나의 순수하고 거대한 흐름으로 모였다. 그들은 비학비수하고 안으로 찾으며 사람의 마음을 제거해, 자신을 단련하는 동시에 중생구도를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했다.

8월 22일, 영국 파룬궁수련자들은 런던 도심에서 퍼레이드를 열고, 경로를 따라 시민들에게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폭로하며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낮 12시, 퍼레이드 대열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출발했다. 길게 이어진 대열에는 우아하고 완만한 연공 진영, 활기찬 요고(腰鼓)팀, 진상을 알리는 현수막 및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진영이 있었고, 그 안에는 4억 명이 넘는 중국인의 중공 탈퇴를 축하하며 환희에

차 뛰노는 ‘작은 사자’도 있었다. 그리고 박해로 사망한 수련자의 영정을 들고 있는 흰옷 진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퍼레이드는 경로를 따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이목을 끌어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고 수련자가 건네는 진상 전단지를 연이어 받았다. 은퇴 전 항공 및 선박 보험 업무에 종사했던 페기(Peggy)는 당일 퍼레이드 분위기를 “매우 평화롭고 무척 상서롭습니다”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자가 겪는 박해와 강제 장기적출의 진상을 알게 됐을 때, 그녀는 몹시 가슴 아파하며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라며,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종식돼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파룬따파의 ‘진선인’ 이념에 대해 페기는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가치는 매우 훌륭합니다”라고 연신 찬사를 보냈다.

8월 중순,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장관 윈터턴 남작부인(Baroness Winterton)과 하원의원 페리알 클라크(Feryal Clark), 데어드레 코스티건(Deirdre Costigan)은 차례로 중공의 파룬궁 박해 의제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답신을 보냈다. 정계 인사들은 서한에서 영국 정부가 중국의 신앙 단체가 직면한 가혹한 박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일치하게 밝혔으며,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한에서 영국 정계 인사들은 중공의 극악무도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런던의 시민 재판소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의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적인 판결을 인용했다. 또한 올해 4월 런던 대영박물관 앞에서 발생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폭력 습격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며, 중공이 박해의 마수를 해외까지 뻗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급한 몇 가지 종교 문화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신의 율법을 준수하고 신의 계시를 경청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성현에 대한 서술도 자연히 여기서 멈춘다.

하지만 중화문화는 좀 다르다. 중화문화에도 황제(黃帝), 광성자(廣成子), 적송자(赤松子), 장도릉(張道陵), 허손(許遜) 등과 같은 비슷한 성현이 많다. 그들의 일생 사적에 대한 서술은 대개 이들이 수련에 성취를 이루고 천국으로 돌아간 시점까지 이어진 뒤에야 비로소 끝난다.

다시 말해, 비록 세계의 많은 민족 문화가 신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 모세, 황제 등 세계의 많은 신에 대한 경건한 신앙인과 정진하는 수련자들이 최종적으로 천국과 신의 곁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중화문화만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문화 전승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화문화는 진정한 ‘회천위본’이라는 근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중화문화와 세계 다른 민족 문화의 중대한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중화문화는 어떻게 ‘회천위본’을 유지했을까?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있을까? 먼저 역사의 전반적인 구도에서 살펴보자.

2. 오천 년 문명의 시대 구분

1) 어떤 방식으로 중화문화 발전의 구도와 과정을 개괄할 것인가?

중화문화 발전의 전반적인 구도와 과정을 개괄하려면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어떤 패턴을 취해 개괄할 것인가. 둘째, ‘오천 년 문화’의 시작점과 종점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패턴 문제에 관해, 중국 전통문화는 시간, 공간, 생명의 동형(同構, 구조가 같음) 관계를 보편적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시간적

굽이치는 장강물은 영웅을 씻어내고 진흙과 모래를 씻어내며 동해, 즉 저 해외의 선산(仙山)과 불로장생의 피안으로 도도히 흘러든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영겁의 시간이 흐르고 우주는 넓고 끝이 없건만, 과연 몇 사람이나 세상 밖의 선산을 찾았던가? 몇 사람이나 속세의 인연을 끊고 피안에 올랐던가?

역사의 시대 구분을 통해 진정한 중화문명을 인식하다

글/ 명간(明簡)

[명혜망] 중화문화는 ‘회천위본(回天爲本-하늘로 돌아감을 근본으로 삼음)’이라는 근본 성질을 갖고 있다. 이 ‘회천위본’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가는 진정으로 중화문명을 이해할 수 있는가의 열쇠다. 본 글은 중화 5천 년 문명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중화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회천위본’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중화문화는 진정 ‘회천위본’이란 근본 성질을 갖고 있는가?

먼저 한 가지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중화문화는 진정 이런 ‘회천위본’이란 근본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비교를 통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세계의 많은 오래된 민족과 문화에는 모두 자신이 숭배하는 성현(聖賢)이 있다. 예를 들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통으로 신봉하는 아브라함, 모세 등이다. 이런 종교와 민족의 문화에서 성현의 사적에 대한 서술은 대개 ‘그들은 신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위에서 언

그들은 영국이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외교 무대에서 중국 정부에 직접 인권 우려를 제기하고 관련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동시에 영국이 어떠한 비도덕적인 장기이식 거래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했다.

8월 15일과 16일, 파룬궁수련자는 이미 5년 연속 영국 브라이튼 프레스턴 파크에서 열린 태국 문화 축제(Magic of Thailand) 행사에 초청받았다. 올해 그들은 본부석에서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5장 공법을 시연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 전통의 특색을 지닌 용춤과 중국 북 공연도 선보였다. 리디아는 아들과 함께 30분 넘게 공법을 배웠다. “공법을 체험할 때 진정한 감사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줄곧 찾고 있던 것입니다. 제 몸과 정신이 모두 제가 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최 측 매니저 재키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선보인 용춤 공연에 감사를 표하며, 문화 축제에 아름다운 중화 문화의 색채를 더해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런던 행사에도 수련자들을 계속 초청하기를 기대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호주 파룬궁수련자들은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모여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서의 집회, 단체 연공, 진상 현수막 전시, 서명 운동, 국회 조찬회 개최 및 의원과 정부 대표 면담 등의 활동을 통해, 호주 정부가 호주에 대한 중공의 침투와 해외 단체에 대해 끊임없이 고조되는 초국가적 탄압을 직시하고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 원내이선당(One Nation) 연방 상원의원 말콤 로버츠(Malcolm Roberts)는 8월 18일 오후 집회 현장에 와서 축사를 했다. 그는 파룬궁수련자들의 이념과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파룬궁 단체가 중공의 침투를 폭로하고 호주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며 인류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쏟은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파룬궁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실 진상을 폭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러분의 이념과 요구를 위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민주주의를 통해 호주에 기여하신 점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적극적인 민주주의가 없을 때 그것은 수동적인 민주주의로 미끄러져 냉담함을 초래하고, 결국 억압과 폭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에 매우 감사드리며, 인류를 위해 하신 기여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호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공은 반인륜적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토치라이트 재단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리사 코튼은 집회 발언에서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교 박해, 장기적출 및 초국가적 탄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박해받고 감금되며 상품 취급을 받을 때, 기독교인이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지 못 본 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미국 연방 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2025년 장기적출 중지 법안(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of 2025)’을 인용하며 호주 정부가 입법을 통해 중공의 범죄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각계 시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저는 이곳의 커뮤니티와 청원서 서명, 철야 추모 참여, 국회의원에게 편지 쓰기, 기도, 진상 알아보기, 그리고 수수방관하지 않고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피해자, 생존자, 가족을 찾는 가정, 그리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양심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정의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데 열중할 뿐 거시적인 시간의 깊이가 없다. 원문의 정취를 되새겨 보면 양심의 사는 제3자의 눈으로 인생의 부침을 바라보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질구레한 감상에 빠져 내면을 소모하느니, 강가의 어부와 나무꾼처럼 비바람 치는 세월을 막걸리 한 잔의 담소로 바꾸어 바람에 날려 보내고, 감정의 짐이나 삶의 무게, 인생의 집착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는 편이 낫다.

3. 우주관

요약하자면 ‘굽이치는 장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라는 이 사가 그려낸 것은 인생을 굽어보는 역사의 큰 지혜로, 무상함 속에서 내면의 평온과 탈속의 우주관을 유지하도록 깨달음을 준다. 반면 로맨스 소설은 불가피하게 이에 빠져든 독자, 특히 세상 물정에 어둡고 아직 삶의 시련을 겪지 않은 소년 소녀들을 작은 소라 껍데기 속에 가두고, ‘옹고집을 부리는 것이 일편단심이다’, ‘사랑이나 이별은 전적으로 개인의 감정에 달렸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르치게 한다. 또한 짧은 욕망과 집착을 규범으로 삼아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인연의 기초와 도덕적 지침을 잃게 한다.

감히 말하건대 많은 로맨스 소설이 사람의 심신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정신적 마약과 같아서, 무방비 상태에서 중독되게 해 결국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한다. 설령 인연이 닿은 사람을 만났다 해도 그와 어울릴 때 편견과 고집을 부리기 쉬워 자신의 복덕과 선연을 해치게 된다.

어떤 마약이든 거기에 빠져든 사람, 특히 이런 정신적 마약으로 타인을 오도하는 작가들은 생전과 사후의 금전 및 명예 등 이익이 아무리 한때 성황을 이뤘다 해도 결국 제명에 죽지 못하고 가문에 무궁한 후환을 남긴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 이는 탄식을 자아내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며, 타산지석이자 역사의 교훈이다.

‘낭만’이란 무엇인가? 송(宋)나라 사람 소식(蘇軾)은 ‘맹진(孟震)과 함께 상주(常州) 승사(僧舍)에 노닐며’라는 시에서 “최근 들어 더욱 이생이 뜬구름 같음을 깨달아, 삼오(三吳) 지방을 이리저리 낭만스레 떠도네”라고 썼다. 이 문호의 마음속에 낭만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제멋대로 구는 자유분방함이다. 후인들은 이 두 글자를 시적이고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과장했고, 나아가 사생활을 햇빛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문인들은 이 단어를 남녀 관계의 풍류와 행동의 방탕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며 크게 선전하고 추앙했다. 오늘날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이혼, 한부모 가정, 불륜 등의 씨앗은 오늘에야 뿌려진 것이 아니다. 단지 오늘날 더 많은 사람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일상으로 치부하게 됐을 뿐이다.

2) ‘성패 득실’을 세상의 중심으로 간주

로맨스 소설은 종종 주인공의 가학적 사랑과 원한, 신분 지위의 변화(예를 들어 내연녀의 득세, 재벌가 은원 속의 승패)를 극의 절대적 핵심으로 삼아 ‘사랑 혹은 지위를 잃으면 세상 전부를 잃는 것과 같다’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원문을 되새겨 보면 드높은 청산 아래와 눈부신 석양 아래에서 이른바 애증과 원한, 권력 투쟁은 그저 바다의 좁쌀 한 알일 뿐이요, 고개를 돌리면 헛것이 되는 물속의 달이자 거울 속의 꽃이니, 얻은들 어떠하고 잃은들 또 어떠한가? 청산은 예나 다름없고 해는 여전히 뜬다. 그러나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닌 가학적 사랑과 계략에 빠지면 생명의 진실함, 선량함, 관대함을 잃게 되고, 결국 자신(자신의 본심과 진정한 천성)을 버리는 것이다.

3) 천지와 시간에 대한 경외심 부족

로맨스 소설은 대부분 당장의 떠들썩함과 애증의 교차를 묘사하는

8월 23일, 일본 파룬궁수련자들은 일본 효고현 오노시에서 열린 제49회 오노 여름 축제에 참가했다. 10여 년 전 파룬궁수련자들이 이 축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파룬궁수련자들은 공법 시연과 요고(腰鼓) 공연을 통해 다시 현지 시민들과 만났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이날 3개의 무대와 3차례의 퍼레이드 공연에 참가했다. 요고팀 구성원의 연령은 10세 어린이부터 70세 노인까지 다양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요고팀은 거리를 따라 행진했다. 일사불란한 북소리와 대원들의 활기찬 모습은 많은 관객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일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다.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두 번의 주말 동안 파룬궁수련자들은 프랑스 파리 벨빌, 이탈리아 광장, 샤텔레 거리에서 잇따라 행사를 열었다. 많은 파리 시민과 관광객이 발걸음을 멈추고 파룬궁에 대해 알아봤고, 중공의 다년간 지속된 박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서명으로 수련자들의 박해 반대를 지지했다. 파룬궁이 창도하는 ‘진선인’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했던 미셸 파투(Michelle Fatoux)는 중국에서 사람들이 ‘진선인’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오랫동안 평정심을 되찾지 못했다. 미셸 파투는 말했다. “이러한 폭력의 심각성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문이자 폭행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강제 장기적출이 개인의 생명에 대한 상해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도덕적 마지노선을 심각하게 짓밟는 것이라고 여겼다.

8월 15일, 아일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서부 케리주(County Ker

ry)의 주도 트랄리(Tralee) 장미 축제 기간에 진상을 전하며 공범을 시연했고,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전시판과 전단지를 읽으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박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Joe)는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생체 장기적출 상황을 파악한 후 박해 종식을 요구하며 서명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양심인데, 그 누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는 “모든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재키(Jackie)는 자신이 예전에 우연히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대해 알게 됐다며 “당시 깜짝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더 이상 이대로 계속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당일 전시판을 본 재키는 마음속으로 ‘내 이름을 서명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서 서명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27년간 지속된 이 박해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랐으며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성공을 빕니다, 우리 함께 행동합시다!”라고 말했다.

8월 15일, 핀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은 헬싱키 도심의 나링카 광장에서 정보의 날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파룬따파와 중공이 지속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상황을 소개했다. 루리라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지속적으로 박해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게 된 후 말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는 매우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해야 하고, 조금씩 쌓아가야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알람은 이러한 불공정에 직면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해야 합니

2. 로맨스 소설의 흔한 오도와 반차

이에 비해 일반적인 통속 로맨스 소설은 흔히 미시적이고 이성을 잃은, 심지어 변태적이고 패륜적인 감정의 얽힘에 초점을 맞춘다. 만약 그것을 이 사의 본래 경지와 비교한다면, 종종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식상의 오도를 낳게 된다.

1) ‘집착’을 ‘깊은 애정’으로 오도

로맨스 소설은 종종 ‘사랑하지만 얻지 못함’,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음’ 또는 ‘뼈에 사무치는 애증’을 비할 데 없이 위대하게 과장하며, 이것이 생명의 모든 의미라고 여긴다.

원문을 되새겨 장강과 석양의 시각에서 보면 개인의 정애(情愛)의 얽힘은 역사의 타류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다. 사람의 일생에서 한때의 감정적 곤경을 무한히 확대하고 심지어 평생을 바치는 것은, 바로 시사(詩詞)에서 비웃는 융통성 없음과 완고한 집착이다.

장강은 양쯔강(揚子江)이라고도 불리며 애초에는 양저우에서 전강(鎮江)에 이르는 강줄기를 의미했다. 장강의 총길이는 6300km로 본류는 칭짱고원 동부 탕구라산맥 젠라단둥봉에서 발원해 중국 서남부(칭하이, 티베트, 윈난, 쓰촨, 충칭) 5개 성과 중부(후베이, 후난, 장시) 3개 성, 동부(안후이, 장쑤) 2개 성을 가로지른다. 이 10개 성을 지나 상하이에서 동해로 흘러든다.

장강과 황하는 중화 문화의 어머니 강으로 병칭되며 장강 문명과 황하 문명을 잉태했다. 이런 체급과 스케일은 개인의 한때 정애와 결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인생 백 년, 아무리 깊은 정이라도 짧은 것이며, 하물며 극단적인 사랑은 쉽게 원망과 증오로 격화되기 마련이다.

히 분석하고 논의해 보겠다.

1. 원문의 탈속과 초탈의 경지

이 사의 정수는 거시적인 우주의 시각으로 짧은 인간 세상의 집착을 녹여내 지극한 활달함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서두의 ‘굽이치는 장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물보라에 못 영웅들 모두 사라졌네’는 드넓은 강물과 짧은 생명을 교차시켰다. 우주의 기나긴 강물 앞에서는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이든 세상을 놀라게 한 크나큰 업적이든 결국 물보라처럼 사라지고 만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대비다.

‘시비와 성패는 고개 돌리면 그만인 것을’이라는 구절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평생과 한때의 성패와 득실을 철저히 간파한 것이다. 이기면 어떻게 지면 또 어떠한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구르고 굴러 앞으로 나아가고, 모든 권력과 투쟁은 결국 허무로 돌아간다. 이것은 가치관 차원에서의 철저한 해탈이자 세속을 초월한 것이다.

‘청산은 예나 다름없건만, 붉은 석양은 몇 번이나 지고 떴던가’는 냉정하고 영원한 자연경관으로 인류 운명의 무상함을 반어적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부와 나무꾼, 은사는 ‘가을 달과 봄바람 보는 것에 익숙하네’라며, 세월의 흐름을 낚설지 않게 여기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담담함으로 내면화했다. 이것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천인합일(天人合一)하는 평온함이다.

결말의 ‘막걸리 한 병에 기쁘게 마주 앉아, 고금의 크고 작은 일들 모두 웃음소리 속에 실어 보내네’는 무수히 무거운 역사의 은원(恩怨)과 정치의 흥망성쇠를 몇몇 오랜 친구들의 맑은 차와 맑은 술 사이에서 웃음에 부치며,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가볍고 담담하게 넘겨버린다.

다. 이는 풀 뿌리부터 정부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는 또 사람들에게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시비를 가리도록 격려했다. “만약 불공정을 본다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에게는 발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내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제32회 사라예보 영화제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열렸다.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에서 온 파룬파파 수련자들은 영화제 메인 행사장 앞에서 행사를 열고 사람들에게 파룬파파가 중국에서 겪고 있는 박해를 알리고, 이 박해 종식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8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딜랜시 스트리트 상영관(Delancy Street Screening Room)에 조명이 켜지고 수상 다큐멘터리 ‘언브로큰: 선원, 꺾이지 않는 용기의 무대(Unbroken: The Untold Story of Shen Yun)’가 첫 상영됐으며, 캘리포니아의 여러 시장, 국회의원 후보 등 정계 및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상영이 끝난 후 주최 측은 관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관객들은 어려움과 탄압 속에서도 예술과 전통문화를 전파하려는 선원(神韻) 예술가들의 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했다. 이스트 팔로 알토(East Palo Alto) 시장 웹스터 링컨이 상영회에 참석해 관람 소감을 공유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다큐멘터리가 이전에 몰랐던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며, 대중이 다양한 이슈를 적시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8월 15일, 광역 필라델피아 지역 파룬궁수련자들과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대표는 박해 종식을 촉구하고 서명을 모으며, 미국 상원이 초당적 법안인 S. 4009 '파룬궁 및 생체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20여 명의 중국인 시민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을 탈퇴하는 삼퇴를 선언했다. 비영리 단체 '미국의 진실된 목소리' 대표 아론 바시르는 신앙과 당파를 초월해 박해받는 집단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바시르 대표는 말했다. "단지 당신의 신앙 때문에 강제로 병원에 끌려가 장기를 적출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장은 없어지고, 심장은 없어지고, 간은 없어졌는데 심지어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족이 알게 됐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동료, 모든 정치인에게 당파적 배경을 불문하고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파룬궁 집단을 지지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8월 16일, 캐나다 광역 밴쿠버 지역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밴쿠버 버너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13명의 다민족 파룬궁수련자가 각자의 환경이나 항목에서 어떻게 안으로 찾고, 근본적인 집착을 제거하며, 사전(史前) 서약을 실천해 자비롭게 중생을 구했는지 수련 과정을 교류했다.

8월 16일 인도네시아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족자카르타에서 열렸고 전국 각지에서 온 수련자들이 교류회에 참가했다. 17명의 수련자가 자신의 수련 과정을 나누며 어떻게 안으로 찾아 '진선인'을 일상에 융합시켰는지, 또 매년 생활의 시련 속에서 자신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다.

문화예술

굽이치는 장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글/ 명월(明月)

[명혜망]

굽이치는 장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물보라에 못 영웅들 모두 사라졌네
시비와 성패는 고개 돌리면 그만인 것을

청산은 예나 다름없건만 붉은 석양은 몇 번이나 지고 뒤흔들

강가 모래톱의 백발 어부와 나무꾼, 가을 달과 봄바람 보는 것에 익숙하네
막걸리 한 병에 기쁘게 마주 앉아

고금의 크고 작은 일들, 모두 웃음소리 속에 실어 보내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이것은 명(明)나라 문학가이자 명나라 제일의 재자(才子)로 불리는 양진(楊慎: 자는 용수, 호는 승암, 1488~1559)이 쓴 '임강선(臨江仙)·굽이치는 장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라는 사(詞)다. 훗날 청(淸)나라 초기의 문학 비평가 모종강(毛宗崗: 천곡노인)이 평하고 고쳐 현대 통용판(모종강판이라고도 함) '삼국연의(三國演義)'의 서두에 쓰이면서 매우 높은 오성과 인생의 경지를 보여줬다. 많은 사람이 이 사가 보여주는 풍경의 아름다움, 즉 호방함 속의 함축미, 고조됨 속의 깊이, 천지의 색채, 계절의 변화, 술기운에 실어내는 담박하고 평온한 정취를 흠모하며, 반복해서 읽다 보면 늘 입가에 향기가 맴돌게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초범탈속(超凡脫俗)한 고대 작품이 '로맨스 소설'에 의해 왜곡 해석돼 한 세대의 소년 소녀와 그 자자손손까지 오도하고 있다. 아래에 간략

이번 원고모집 통지가 발표된 후, 업무 등 여러 일의 영향으로 진정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이번엔 원고를 쓸 구상이 떠오르지 않으니 차라리 나는 쓰지 말고, 원고 정리에 도움이 필요한 수련생이 있으면 도와주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나는 꿈을 하나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답안지를 다 작성해 제출하려 하면서 속으로 ‘겨우 이 정도 문제뿐인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답안지를 냈다. 그런데 제출하고 나서야 나는 답안지 앞면의 문제만 풀었을 뿐 뒷면의 문제는 전혀 풀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즉, 내가 제출한 답안지는 작성이 불완전했던 것이다. 꿈에서 깬 후 나는 이번 답안지(중국법회 원고모집 참여)를 대하는 내 태도가 잘못됐음을 알았다. 사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원고모집에 참여했는데, 마음이 법에 있기만 하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구상이 끊임없이 샘솟아 마침내 한 편의 글이 완성됐다. 나는 이 꿈이 사부님께서 내게 답안지를 진지하게 완성하라고 일깨워주시는 것임을 알았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조건이 되는 더 많은 중국 수련생이 법회 원고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원고 작성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걸어온 수련의 길을 되돌아보고 총결하는 것이며, 앞으로 수련의 길을 어떻게 잘 걸어갈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글을 완성한 후 나는 중국법회 원고모집에 참여할 구상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 답변을 온전히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하려 한다.

이상은 개인의 현재 증차에서의 체득일 뿐이니 법에 있지 않은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 중국 소식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푸라얼지구 파룬궁수련자 야오싱치(姚興啓·남·79세)가 2026년 5월 11일, 야오싱치가 베이징 파출소에 찾아가 빼앗긴 대법서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파출소는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다음 날, 여러 명의 경찰이 그를 다시 납치해 치치하얼시 제1구치소에 감금했다. 5월 21일, 야오싱치는 구치소에서 박해받아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책임을 질까 두려워 5월 29일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6월 24일, 야오싱치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랴오닝성 잉커우시 다스차오시 8명의 파룬궁수련자와 수련하지 않는 가족 1명이 2025년 11월 경찰에 납치돼 감금됐으며, 그들은 잉커우시 잔첸구 검찰원에 의해 모함받아 기소됐다. 2026년 7월 16일과 17일, 잔첸구 법원은 이틀 연속 불법적으로 이 사건을 재판했으며, 8월 11일 (2026) 랴오(遼)0802형초(刑初) 72호 ‘형사판결서’를 내려 9명 전원에게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갈취했다. 장위전(張余振, 71세), 9년형, 궁쑤옌(龔素艷, 72세, 장위전의 아내), 8년 6개월형, 왕자오민(王兆敏) 7년형, 싱둥메이(邢冬梅) 5년형, 왕쥔(王軍) 2년 6개월형, 리슈잉(李秀英) 2년형, 양창(楊強) 1년 6개월형, 장보(張博·장위전의 아들·파룬궁 비수련자) 1년 3개월형, 싱춘어(邢春娥) 6개월형, 9명 전원에게 5천위안에서 5만위안 사이의 벌금을 갈취했다.

산둥성 핑두시의 75세 파룬궁수련자 쑤창허(孫長河)가 2026

년 1월 7일 경찰에 납치,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핑두시 법원은 그에게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했다. 1월 7일, 핑두시에서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두 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청관(城關) 파출소 경찰이 쑨창허를 부당하게 끌고 갈 때, 그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디가 잘못됐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경찰은 그에게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다.

광둥성 사오관시 산하 러창시 직업고등학교 교사이자 파룬궁수련자인 량젠롄(梁劍君)이 러창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가 두 번째로 불법적인 선고를 받은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량젠롄은 부당하게 5년형을 선고받고 베이징 감옥에서 박해를 받았다. 54세인 량젠롄은 광둥성 러창시 직업고등학교의 우수 교사다. 2025년 7월 중순, 량젠롄과 차오리핑(曹麗萍) 부부는 경찰에게 납치됐다. 량젠롄은 러창시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고, 차오리핑은 사오관시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지난 1년간 그들이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는 동안, 외부에서는 그들의 처지와 그들이 겪은 박해에 대해 알 수 없었다.

2026년 3월부터 6월 사이, **충칭시** 주룽포구의 88세 여성 파룬궁수련자 주위구이(朱玉貴)가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충칭시 찌우마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2023년 3월, 충칭시 주룽포구의 여성 파룬궁수련자 5명인 황뤄빈(黃履斌), 탄핑(譚萍), 주위구이, 쩡상징(曾尚靜) 그리고 류(劉) 씨 수련자가 충칭시 양자핑 신스지 상가에서 진상 지폐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충칭시 주룽포구 양자핑 파출소 경찰에게 끌려갔다. 주위구이는 이후 풀려

을 쓰기 시작하셨다. 며칠 전 어머니는 문득 자신이 쓴 글이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내가 예전에 원고를 쓰며 얻은 수확을 교류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비슷한 체득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교사라는 직업의 영향을 받아 교류 글을 쓸 때도 일반인의 글쓰기 방식에 따라 어떻게 하면 주제에 밀착할지 더 신경 쓰시고, 이 기회를 빌려 자신의 수련 길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수련에서 제고하려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도 어느 정도 수궁하셨다. 요 며칠 어머니는 이번 원고 작성을 통해 예전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스스로 법에 있다고 여겼으나 사실은 진정으로 수련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발견했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글쓰기 방식 등에서 일부러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투고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조건이 되는 다른 수련생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올해 ‘5·13 원고모집’ 때, 우리는 아는 수련생들과 교류하며 투고에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처음에 그들은 딱히 쓸 내용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말로 하면 내가 글로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머지않아 그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졌고, 마지막에 토론을 거쳐 이야기 일부만 발췌해 글로 완성했으며,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내가 가족 외의 수련생을 도와 원고를 정리한 첫 경험이었는데, 이 기간에 나는 뜻밖에도 직장 상사로부터 임금 인상 대상자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체 부서 수십 명 중 몇 명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였다. 나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내가 더 많은 수련생의 원고 정리를 돕는 것에 대해 긍정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임을 알았다!

교류 원고를 쓰며 얻은 수확에 대해서 말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통지가 발표된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최근 일부 수련생도 투고에 참여한 체득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나도 예전에 교류 원고를 쓰며 얻은 수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나는 졸업 후 고향에 돌아와 일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부모님(수련생)과 함께 살고 있다. 명혜망에서 매년 개최하는 두 차례의 원고모집 행사, 즉 세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날 원고모집과 중국법회 원고모집에 나와 어머니는 모두 참여한다. 때로는 내가 초고를 쓰고 어머니가 원고를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초고를 쓰고 내가 고치기도 한다. 그보다 더 많게는 우리 각자 나누고 싶은 체득이 있어 따로 원고를 쓴 뒤 완성되면 서로 상대방의 글을 수정해 준다. 우리는 서로 원고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명혜망에 투고한다.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수련 중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종종 뜻밖의 수확을 얻곤 한다. 예를 들면 원고를 쓰다가 문득 어떤 일을 겪으며 특정 집착심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이면에 또 다른 집착심이 숨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상황에서는 좀 더 두드러진 표면적 현상 때문에 그 집착심을 그대로 무시해 버렸던 것이다. 또 스스로 꽤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법에 더 부합하는 처리 방법이 있었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번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에 어머니는 이미 며칠 전부터 글

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황뤼빈, 탄핑, 류 씨 수련자, 쩡상징 4명은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충칭시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현재 88세 고령인 그녀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2026년 6월 9일, 랴오닝성 다롄시 진저우구 진팡의 79세 파룬궁수련자 추이후이즈(崔慧芝)가 다롄 야오자 구치소로 납치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추이후이즈는 불법적으로 3년 반 형을 선고받았다. 이전에 가족은 재판 통지를 받지 못했고 단지 구치소로 면회하러 오라는 통보만 받았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조만간 추이후이즈는 선양 여자감옥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한다.

| 수련교류 |

천목(天目)으로 본 것: 악을 행한 자의 업보와 출구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내 친척들은 모두 보조경찰(輔警)인데 그것도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보조경찰이다. 만나는 사람도 보조경찰인 경우가 있다. 그들은 신장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할 때 가택수색, 호송 등에 가담했다. 기밀 유지 협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은 나도 잘 모른다. 그들은 모두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한 사람들이지만 마지못해 동의한 편이다. 나는 그들에게 사람의 정(情)이 있어서, 비록 억지로 삼퇴에 동의하긴 했어도 어쨌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작년에 그들은 모두 업보를 받았다. 젊은 나이에 온몸에 병이 생겼고 그것도 모두 큰 병이었다. 부모 역시 질병이 끊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재물을 잃었다.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들어 그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그런 삼퇴 때문에 기뻐했다. 이때 한 신(神)께서 몹시 화를 내며 나를 질책하셨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지 않느냐!!”

이 신은 문신(門神)과 비슷했지만 층차가 매우 높고 몹시 위엄이 있으셨다. 그 신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중 한 친척이 해친 사람들은 운동장 하나를 짝 채울 만큼 많았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거나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가족 단위로 있었다.

다친 뒤 장애가 생겨 조금 ‘바보’가 된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는 걸까? 이것은 내가 남편에게 아직 원망심이 남아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닌가? 틀렸다! 틀렸다! 또 틀렸다! 남편에 대한 이 원망하는 마음은 반드시 뿌리째 제거해야 한다! 제거하자! 명심하자! 앞으로 누구에게든, 어떤 일이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자!’

‘나는 늙었다’는 관념을 없애다

이번에 막내아들에 대한 원망심을 없애는 과정을 통해 내가 왜 막내아들이 자주 오기를 유독 바랐는지도 발견했다. 바로 나 자신이 늙었고 갈수록 더 늙을 것이며, 스스로 생활을 돌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뒷걱정’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부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했다.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개변하는 과정 중에 사람의 세포가 점차적으로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될 때 노쇠를 늦출 수 있다. 신체는 젊은 사람 방향으로 되돌아감이 나타나며, 점차적으로 되돌아가고, 점차적으로 전화(轉化)하여”(전법륜).

그렇다면 대법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늙을 수 있겠는가? 나는 반드시 ‘늙었다’는 관념을 철저히 닦아 없애야 하고, 더 이상 어떤 뒷걱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의존하고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닦아 없애고 고독과 적막감을 해체해야 한다. 구해야 할 중생이 저렇게나 많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고독하고 적막할 겨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원고를 쓰는 과정은 정말 신기했다!

었다.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투명해지며 한결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고, 막내아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지 않게 됐다. 정말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아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것이다. 동시에 이런 갈등을 겪은 것은 나에게 혈육의 정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사람의 관념과 결별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체득했다.

남편에게 남아 있던 원망을 없애다

아이에 대한 원망심을 닦아 없애는 동시에,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이 제목을 쓸 때 문득 남편에게 아직 남아 있던 원망심이 또 드러났다. 그래서 원고를 쓰면서 그것도 함께 제거했다. 일은 이러했다.

요 며칠 여전히 날씨가 매우 더워 실내 온도가 30~31℃였는데 남편은 식사할 때 굳이 안감이 있는 이중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온화하게 “반소매나 긴소매 셔츠 하나만 입어도 돼요”라고 했다. 그는 내가 잔소리한다고 여기며 나에게 “당신은 참견이 너무 많아. 일도 많고 말도 많고 귀찮아. 나 혼자 집에 있을 테니 당신 나가!”라고 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맞받아쳤다. “30여 년을 하루같이 당신을 시중들고 보살폈는데 좋은 줄도 모르네요. 당신은 아무 일도 안 챙기고 일도 안 하고, 물 마실 때도 따라놓고 식혀줘야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안 주면 직접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식후에 조금 진정되자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러지? 한창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던 중인데 마음 수련이 진실하지 못했고 뿌리를 깊이 파내지 못했구나! 나는 왜 진짜 화가 났다고 느끼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까? 내가 왜

그중 한 사람은 여섯 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이의 키는 그의 허벅지까지 왔다. 그는 또 두 살가량 된 아이를 안고 자신이 겪은 일을 내게 하소연했다. “집에는 봉인이 붙었고 재산은 전부 몰수당했으며, 두 아이와 아내, 그리고 저는 각기 다른 곳으로 납치됐습니다. 저는 당시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걱정됐는데, 그들은 슬픔과 절망,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이 친척에게 빚을 갚게 할 것입니다. 1대 1로 갚게 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고통을 겪었던 그가 온전히 한 번 겪게 할 것입니다.” 이 친척은 내 매제인데, 내 여동생도 그와 결혼해 똑같이 연루됐다(내 여동생도 지금 병에 걸렸다). 결혼 전부터 그는 보조경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여동생은 말리기는커녕 그를 선택하고 인정했다. 나는 물었다. “그가 한 일은 내 여동생과 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무너진 듯이 말했다. “그럼 내 아내와 아이들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앞에서 본 이 신께서는 친척이 큰 병 진단을 받기 전 내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찍이 나와 소통하신 적이 있었다. 보조경찰을 하는 친척들은 저마다 압축된 금강암(金剛巖)처럼 커다란 죄악을 지었는데, 그들의 죄는 친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신과 아이, 그리고 아내, 나아가 아내 쪽 친척들까지 전부 영향을 미쳤다. 왜 아이 밑으로는 없을까? 아이에게는 더 이상 후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물었다. “그들은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데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 말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속인이라도 안 된다.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일종의 공포를 조성했고, 또 일부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다시는 선택할 수

없게 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붙잡은 사람 중에 대법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너도 모르지 않느냐. 네가 그들의 악함을 똑똑히 보지 못하는 것은 네가 중공 악당에게 세뇌돼 이 악한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이번은 처음 장쩌민(江澤氏)이 유언비어를 날조해 박해했을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대놓고 선택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모두 신장의 폭정과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규탄하고 있고, 뉴스에도 미국의 백서 등이 보도됐지만 그들은 대놓고 선택했다. 게다가 그들에게 진상을 알린 사람도 적지 않다. 그들은 돈을 위해 여전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내가 물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가 말했다. “그들은 히틀러나 나치 같은 극단적인 종교 조직에 가입한 것과 같으며, 당시의 홍위병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지금 직접적으로 정법(正法)을 교란했으니, 그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다. 그들에게 그토록 큰 지위와 이익을 주지 않아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여기게 했을 뿐이다. 그들은 그중 하나의 고리에 불과하다. 호송돼 나간 사람들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지만, 그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단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쨌든 당시 세뇌반에서 날 감시하던 자가 마지막에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서는 꿈을 꿔다고 하더라니.’ 내 눈에 그는 그저 거기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가끔 나와 놀아주기도 했을 뿐이었다.

나는 친척이 현재 겪고 있는 병업(病業)과 생활의 순탄치 않음 역시 그저 그들에게 그 ‘금강암’에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 검은 연기를 갇게 하는 것일 뿐임을 보았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지만 그들의 태도는 매우 나빴고 짜증을 냈으며, 또 멍하게

원고를 쓰다가 막내아들에 대한 원망심을 닦아 없애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이따금 ‘트림’이 나왔다. 평소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기에 나는 이것이 화가 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생긴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하면서 나오는 그 트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목에 몇 년 동안 늘 가래가 있어 올라오지도 내려가지도 않아 시원하게 뱉어지지도, 순조롭게 삼켜지지도 않았는데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거의 다 나왔다. 나는 깨달았다. ‘앞으로 막내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간격이 없어지면 이 가래 현상도 반드시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실마리를 따라 두 아들과 지냈던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어떤 사람 마음과 관념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지 살펴봤다. 생각하다 보니 늘 생각하던 한 가지 문제가 떠올랐다(사실은 사부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줄곧 ‘물 한 그릇을 평평하게 들어야지, 누구도 손해 보게 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있었다. 사실 그들이 어렸을 때, 특히 막내아들이 외할머니 집에서 돌아온 후부터 나는 ‘물 한 그릇을 평평하게 드는 것’에 주의하고 또 각별히 주의하며 균형과 평균을 맞추고 똑같이 대하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갑자기 이것 자체가 사람의 한 가지 관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마다 각자의 운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균을 맞출 수 있겠는가! 게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두 업력운보(業力輪報)와 관련된 것인데, 알고 보니 내가 법리를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이 억울함과 불평등, 질투를 낳은 뿌리였던 것이다!

아, 알고 보니 내가 틀렸다. 뿌리는 내게 있었다! 그 순간 불평등, 화, 억울함, 원망하는 마음이 짝 사라졌다. 이 고비를 정말 넘

놀랐다. ‘알고 보니 원고를 쓰는 과정이 이렇게 오묘했구나!’

몇 가지 예를 들어 지난해 손으로 원고를 쓰면서 겪은 체득을 나누려 한다.

막내아들에 대한 원망심을 없애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해 직장을 옮겨야 해서 막내아들이 2살도 안 됐을 때 외할머니 집에 맡겼다. 남동생의 딸과 막내아들이 나이가 비슷했기에 외할머니 집에서도 함께 놀 친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 큰아들은 학교 입학 문제에 직면해 줄곧 우리와 함께 생활했다. 뜻밖에도 직장을 옮기는 일이 3년 만에야 이뤄졌다. 이 때문에 막내아들은 자란 후 나에게 불만을 품었고, 내가 큰아들만 편애해 자신을 부모 곁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막내아들은 타고난 자질이 총명해 내가 큰 기대를 품었고, 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 꽤 엄하게 요구하고 관리했다. 이 역시 막내아들이 나에게 불만을 품은 원인이었다.

지금 우리 노부부는 큰아들이 사준 집에 살고 있는데 막내아들은 큰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의심했다. 큰아들은 매우 효심이 깊지만 현재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나는 막내아들이 자주 와서 우리를 살펴보고 적당히 생활을 돌봐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막내아들은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전화로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2년간 내 마음속 가장 큰 병이었고 또한 가장 큰 집착이었다. 몇 년 동안 수련생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기는 했지만, 늘 그 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은근히 아픈 느낌이었다.

있으면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열버무렸다. 지금 업력은 둥근 솔뚜껑 모양을 띠며 일가친척 전체를 덮어씌우고 있다.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했을까? 내 사상이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평온하거나 괜찮게 살 것이라고 여겨, 다른 공간의 신과 피해받은 생명들이 빛을 받으려 갈 수 없게 만들었고 그를 건드리려면 나를 건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그가 잘되기를 바랄 때 그의 업력이 내 몸으로 오고 있었다. 그들에게 피해본 생명들은 상계(上界)에서 그들을 관장하는 신과 직접 연결돼 있었고 신께서는 몹시 분노하셨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 내 사상으로 그들을 보호하려 할 때, 그것은 내 덕(德)을 그들의 업력과 맞바꾸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눈에 나 역시 매우 나쁜 생명이 됐다. 다만, 어쨌든 그들이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은 나와 무관하고 나는 단지 무지했을 뿐이며, 나 역시 피해자이기에 그쪽 생명들도 나를 파멸시키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그 신께서는 아이를 안은 이 남자를 잠시 내 곁에 머물며 나와 대화하게 하셨다. 이 남자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그 친척에게 빛을 갚게 할 것입니다. 나와 그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빛을 저서 이런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며 완전히 무고하기에, 상계에서도 이미 승인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사상은 나를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두아(竇娥, 불공정한 재판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참수된 중국 희곡 내 인물)가 자신을 해친 자들에게 빛을 갚게 하려는데, 당신이 악인 앞에 서서 두아를 가로막는 것과 같으니 내가 당신이 밋겠습니까, 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알겠습

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 어떤 행동으로도 돕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동정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웃으며 알갱이가 흩어지듯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신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직 해결할 방법이 있다. 만약 네 친척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무리 사람들도 모두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뻐할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빚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가담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진심으로 삼퇴를 해도 구원받은 것으로 친다. 하지만 직접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구가 더 높다. 그들은 폭로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해야 하고, 자신들이 한 짓을 말해야 하며, 진정으로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공(功)으로 과오를 갚아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나는 사부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고, 머릿속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다음 단계가 시작됐다. 지금부터 박해에 가담한 모든 자는 가장 큰 업보를 맞이할 것이다. 만약 앞선 것이 한 단계 내려가는 업보였다면, 지금은 적어도 다섯 단계는 내려가는 것이다. 이전에 그들이 평온했던 몇 달간의 시간은 겉보기에는 대법(大法)이 또 비방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시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친척들은 이 기회를 잡지 못했다. 진정한 업보는 이제야 비로소 시작됐다. 그들은 더 이상 일반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이며, 질병, 가족의 죽음, 자녀의 사고, 돈이 물 쓰듯 빠져나가는 등 하나하나의 재난이 모두 닥칠 것이다. 이 공간에서 그들에게 갚게 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한눈에 그들이 사람을 박해해 업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

‘알고 보니 원고 쓰는 과정은 이렇게 오묘했구나’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올해 80여 세로, 이미 사람들이 말하는 팔순 노인이다. 1996년에 법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부님께서 내 몸을 정화해 주셨다. 류머티즘, 부종, 축농증 등 나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하던 모든 병이 짝 사라져 병 없이 온몸이 가뿐해졌다. 그 기간에 몇 번의 소엽도 모두 밤에 고열이 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정신이 맑고 상쾌했다. 직장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할 때 당시 이미 50여 세였던 나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직장 의사와 내가 과륵궁을 수련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매우 놀랐고, 그들도 대법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착실하게 수련하면서 내 몸은 젊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기억하건대 대학 시절, 불과 20대였던 나에게 한 마을 주민이 “30살은 됐나요?”라고 물은 적이 있다. 법공부하고 수련한 후 사람들은 모두 내가 늙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나는 60~70대 때 50대 같아 보였다. 70살 때는 월경도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매우 아쉽게도, 대법을 수련한 이래 나는 자신이 수련을 잘하지 못하고 글을 쓸 줄 모른다는 등의 관념 때문에 교류 원고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2025년 제22회 중국 대법제자 수련심독교류회 기간에 법공부 팀 수련생들이 이번에는 꼭 참가하라고 격려하며 타자와 수정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련 체득을 썼다. 결과적으로 나는 깜짝

해주신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 배가 항해하고 있었고 저는 뱃머리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저를 칠흑 같은 깊은 바다로 휩쓸고 갔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저는 길을 잃었고 어디로 헤엄쳐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한 줄기 빛이 곧게 비치더니, 마치 저를 위해 빛의 통로를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의 통로 속에서 위로 헤엄치고 또 헤엄쳐 수면에 이르렀습니다. 제 머리가 수면 위로 나왔을 때, 저는 사부님을 뵈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수면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몸에서는 부드러운 빛을 뿜어내고 계셨으며, 사부님 등 뒤로는 새하얀 계단이 하늘로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저를 보시고는 몸을 숙여 저를 수면 밖으로 끌어당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내가 널 너무 오래 기다렸구나!” 저는 꿈에서 울다 깨어났고, 사부님께서 고심하며 저를 제도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저처럼 못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저는 더더욱 제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의 이치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수련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사람의 관념을 바꾸고 수련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자아를 내려놓고 순리에 따르며, 최대한 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이끌려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시종일관 제 정념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수련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수련의 초심을 되찾았으며, 법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충만함을 다시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주변 수련생들과 서로 격려하며 세 가지 일을 잘 해내고 정진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보게 할 것이고, 죽은 후에는 지옥에서 계속 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다. 자신의 소행을 폭로하고, 개과천선하며 진정으로 참회하고 보완하라. 대법이 좋다는 것을 외워 복을 받은 이후에는 숨기지 말고 주위 친척들에게 알려라. 자발적으로 진상을 찾고 진심으로 삼퇴하라.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아직 늦지 않고 전환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련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앞으로 집안의 친척이나 친구 중 대법과 대법제자에게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은 큰 재난을 당할 수 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모호한 태도 표명은 절대 안 된다. 만약 정말로 업보가 온다면, 수련자들이 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장기간의 박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악의에 익숙해졌고, 게다가 때로는 더 나쁜 자들과 비교하며 그 사람이 그나마 자신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줬거나 자신에게 잘 대해줬다고 여겨 악을 행한 자를 위해 변명을 찾는다. 이로써 자신도 업을 지어 떨어지게 만든다.

다른 공간에서 보는 것은 매우 공정하며, 완전히 바른 이치로 평가하기에 그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이에 상응해 이번에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앞에서는 다른 공간의 사악이 나쁜 사람을 비호하고 좋은 사람을 탄압했으며, 주변의 깨어 있는 사람들도 사악이 창궐할 때 함께 고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전됐다. 사악이 소멸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삶은 더 좋아질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본 것이니 만약 틀린 점이 있다면 수련자 여러분은 법(法)을 스승으로 삼기 바란다.

‘진(眞)’을 닦는 데 공을 들이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1999년 ‘7·20’ 이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했다. 아래에 최근 몇 년간 ‘진’을 닦는 것에 대한 약간의 깨달음을 적어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한다.

1. 악당 문화 속 ‘거짓’의 영향

나는 ‘문화대혁명’ 이후에 태어났고 중공 악당에 가입한 적이 없어, 악당 문화가 내게 미친 영향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수련의 장애를 더욱 크게 느꼈고, 정진하려는 마음도 점점 약해졌다. 자신의 수많은 집착을 찾았지만 바꿀 동력이 부족했다. 한편으로는 수련을 돌파하지 못해 괴로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착심에 지배당해 마음이 괴롭고 지쳤다.

A 수련생을 만났다. A가 수련하며 기울인 노력은 나를 감탄하게 했지만, A와 실제로 대법 실증 항목을 함께 할 때 드러난 수련생 간의 갈등은 나를 곤혹스럽게 했고, ‘진’을 닦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안으로 찾아보니, ‘마음속 생각 다르고, 입으로 하는 말 다르고, 실제 행동이 다른’ 현상이 내게도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 당문화(黨文化) 속의 ‘거짓’이 아닌가?’ 어려서부터 줄곧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 여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얕보며 거짓말을 하찮게 여겼는데, 어째서 내게도 ‘거짓’된 모습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공산사령(共產邪靈)이 생활환경을 이용해 내게 주입한 ‘공산당 당문화(黨文化)’ 관념이며, 집착심이 내 생각 속에서 나

을 당할 때면 주로 억울함을 참고 감히 제 생각을 표현하거나 반격하지 못했기에, 성격 중에 겁이 많고 나약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똑같이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제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억울함과 쟁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이 아주 강해서 얼굴을 붉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제 이미지가 손상될까 봐 걱정했는데, 이는 명예욕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A 사이에 이렇게 오랜 세월 얽힌 것에 구세력이 안 배하고 이용한 깊은 층차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여 년 전, 저는 우연히 A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눈빛 속의 증오가 어디서 본 듯해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저도 모르게 오싹해졌습니다. 제 생명 깊은 곳에서 역사적으로도 그녀가 저를 이렇게 대하며 저를 파멸시켰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와 교류할 때 거리를 두려고 몹시 주의했고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했지만, 내심으로는 그녀를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감히 마음을 열고 교류하지 못했으며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녀를 대할 때 진정한 선을 닦아내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련인으로서 마땅히 인과를 초월하고 정념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저는 정말로 그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닦는 과정은 저를 매우 성숙하게 해주었고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몇 년의 허송세월을 보낸 후, 저는 마침내 사부님의 도움으로 수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번은 사부님께서 꿈을 통해 저를 구

사람의 도덕적 원칙이었고, 저는 사람의 이치와 수련인의 이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사이에서는 정직하고 선량하며 시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미덕이지만, 수련인의 경지는 결코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수련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사악한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에 중독된 전형적인 현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행동이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함에 대해 수련인은 일부러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선하게 대하며, 누구에게나 자비와 포용을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련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경지입니다.

그 밖에도 이런 사람의 이치는 제게 완고한 관념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자랑스러워하며 스스로 훌륭하다고 여겼고, 고고한 척하며 자만했고, 편협하고 고지식했으며, 남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면 애써 화를 참았는데, 사실 그것은 악을 증오하는 마음과 질투심이 매우 강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독선적이고 겸손하지 못한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하기 쉬웠고, 사람의 마음이 있는 수련생들의 비교와 다툼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원망심이 생기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자아가 너무 무거워서 저 자신의 호불호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빠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범하고 솔직하지도 못해서 갈등 앞에서 제 생각을 표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어릴 적부터 괴롭힘

를 속여 자신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핑계를 찾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언행을 미화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악당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은폐된 사유는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하며, 오직 스스로 법에 대조해 보아야만 똑바로 인식하고 타파할 수 있다. 그것은 수련인에게 극심한 해를 끼치며 수련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든다.

2. 진실하지 못한 은폐된 모습

사람이 생활 속 사소한 일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종종 진정한 심성을 반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많은 일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실하지 못함은 곧 거짓이고 기만이다. 아래에 내가 체득한 진실하지 못한 은폐된 모습 몇 가지를 들어보겠다.

1) 대중대중 얼버무리기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서든 좋은 사람이 돼야 하고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무엇이든 몹시 무관심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나는 법에서 핑계를 찾으며 ‘이 집착이 없어져서 상관하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했다. 사실 상 이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과 관심조차 없는 이기적인 모습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라면 안일한 마음에 이끌려 미루고 미루다가, 더는 미룰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일을 서둘러 끝냈다. 일을 날림으로 대중 하면 종종 결과가 좋지 않았고, 겉보기에도 이것저것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한번은 수련생을 도와 연공 음악을 복사해준 적이 있다. 나의 미루는 버릇 때문에 만나기 직전에야 이 일을 했다. 당시 정신이 흐리

명당해서, 수련생이 원한 것은 한 시간짜리 제2장 공법 파일이었는데 나는 30분짜리를 복사했다. 수련생에게 전해주고 또 일주일이란 어느 날, 문득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생각이 떠올라 서둘러 수습했다. 두 번이나 달려가서야 수련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녀도 잘못 복사된 카드를 아직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 이것은 집착심을 없애지 않아 초래된 번거로움이다. 나는 본래 이 기회를 잘 이용해 안으로 찾아 안일심을 버리고 제고했어야 했다. 하지만 얼렁뚱땅 넘어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일단 일을 잘못하면 ‘구세력의 교란’을 핑계로 삼으며 안으로 찾는 것을 소홀히 했다. 실수를 수습하고 나면 자신이 이 일에서 제고했다고 여겼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 수련인의 제고를 가로막는 것이며, 더 심각하게는 수련생의 오해와 간극을 만들어 법 실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중공사당(中共邪黨)의 사악한 당문화(黨文化)는 수십 년간의 주입으로 은연중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미 일부 대법제자를 포함한 대륙 중국인의 성격을 왜곡되게 하고 문제를 생각함에 모두 극단적이게 했으며, 나아가 국제사회 사람의 생각 및 전통적인 고대 중국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대륙의 십 몇억 사람들이 서서히 주입 당하는 가운데 느끼지도 못한 채 변이되었는데, 모두 ‘다 똑같은데 무슨 문제 될 것이 없다. 사람은 곧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때론 매체에서 당신들을 쓰고, 때론 항목에서 당신들을 쓰는데, 당신들의 생각, 그런 당문화의 극단적인 작법·거짓말·대충대충 하는 업무 작태는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못 견디게 한다. 만약 당신들이 미국인 및 세계 각 지역 자유국가의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각지 설법13-2014년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

2. 집착을 깊이 파내며 안으로 찾다

사부님께서 저를 위험의 벼랑 끝에서 구해주신 후, 저도 대체 무슨 원인으로 제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매우 바빠서 법공부가 형식에 흐르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 법공부로 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법이 없으니 법으로 제 수련을 지도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식을 강화하여 법공부를 할 때 판생각이 들면 그 문장을 다시 읽었고,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공부했습니다. 비록 새로운 법리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제 정념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법을 외우는 것을 꾸준히 했습니다. 법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저는 점차 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통 관념이 비교적 강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른들로부터 사람의 도리와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적 원칙을 배웠습니다. 제가 좋은 품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는 했지만, 이런 훌륭한 모습들은 단지 인간 세상에서의 교양과 수양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외투가 되어 저를 포장했고, 수련에서 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위장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제 심성의 진정한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겉보기에는 수련인처럼 행동했지만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았고, 내면에서부터 진정으로 ‘진선인’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일은 넘어가는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은 닦아내지 못했고, 갈등이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동안 쌓였던 사람의 마음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수련인으로서 제가 고수했던 것은 대법의 원칙이 아니라

나와야 했고, 마침 병업에 걸린 수련생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협력할 수 있는 다른 수련생들을 찾아 함께 그 수련생의 가족과 상의했고, 우리가 당분간 수련생을 돌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련생의 가족은 결국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비록 이 수련생은 끝내 육신을 빼앗겼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우리가 수련생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경멸에서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련생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생명이 거의 1년이나 연장됐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수련생은 애초에 생명이 위독할 때 대법 수련에 들어왔기에 실제로는 생명이 20년 이상 연장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글을 모르는 수련생과 비교하고, 억울한 옥살이로 박해받는 수련생과 비교하며, 병업 시련에 빠진 수련생과 비교해 볼 때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이른바 어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것을 너무 무겁게 여기고 답답하고 가볍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베푸는 기쁨을 체험했고, 생명과 수련생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마음속으로 수련생을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결국 부정적인 요소에 휩싸였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차가운 얼음 덩어리처럼 저를 꽁꽁 얼려 수련생들과 두꺼운 간격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부님께서 제게 해주신 안배는 바로 그 단단한 얼음을 번번이 깨뜨려 진정한 저를 깨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악한 요소가 줄어들고 선의 힘이 점차 충만하고 강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공부를 통해 나는 사령이 주입한 ‘거짓’을 닦아 없애고 ‘진’을 닦아내는 것이 얼마나 관건적인지 더욱 체득했다.

2) 집착을 감추고 남과 자신을 속이기

‘거짓’이 부풀려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쓰며, 극단적인 경우 진실한 자신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 또한 무의식중에 이러한 사회적 풍조에 휩쓸려, 수련인들 사이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집착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했다. 이러한 집착들은 각양각색으로 모든 방면에 존재했다.

나를 예로 들자면 안일한 마음이 컸다. 안일함과 미루는 습관에서 비롯된 누락과 실수를 나는 자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고, 무의식중에 감추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수습함으로써 허위적인 ‘능력 있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감춰진 안일심이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명예욕을 키웠다. 때로는 칭찬받는 중에 정말로 자신이 꽤 괜찮다고 여겨 우쭐해지며, 자신을 실증하고 오만방자한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다. 매번 수련에서 제고될 수 있었던 기회는 이 허위적인 은폐로 인해 망가져 버렸다.

수련 중에서 나는 마치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어른들에게 여전히 착한 아이라고 여겨지길 바라는 아이처럼, 늘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합리적인 변명을 찾았다. 서서히 나 자신도 이 사람을 속이는 변명들을 굳게 믿게 됐다.

어떤 집착이 일으킨 것이든 감추는 거짓된 일을 했다면 그것은 곧 기만이다. 거짓된 일을 한 후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면 고칠 기회가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조차 속여 은폐와 수습을 책임감이나 정진으로 여기며, 정말로 자신이 꽤 괜찮다고 느끼

는 것이다. 집착심을 키워놓으면 진실한 말조차 귀에 거슬리게 되니, 집착을 버리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며, 수련인은 법의 지도가 있기에 최대한 잘못을 덜 저지르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자신이 어디를 보나 괜찮고 무엇을 하든 뛰어나다고 여기며, 협조가 잘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남이 트집 잡고 흠을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거짓’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3)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대를 추켜세우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이전에 나는 오류에 빠져 자신이 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진’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이 ‘진실한’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며, 상대가 너무 나약한 것이라고 여겼다.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수련생은 이런 생각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악(惡)’의 일종이라고 지적해줬다. 나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식했다. 이런 직선적인 표현 방식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재단하는 것이고 자기만족식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라, 상대에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격렬한 언사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그러나 이 집착을 버리려 노력할 때 더 큰 난관이 나타났다. 갈수록 상대의 입장에 서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나는 종종 상대가 어떤 방면에 집착하고 있는지, 상대 언행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일종의 갈등을 초래했다. 속인의 경우 그들의 속뜻을 내가 알더라도 곤란하지 않았는데, 속인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수련인은 스스로 법에서 깨달아 올라가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제고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노모를 찾아가 뵈려 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아흔이 넘은 연세에 홀로 집에 계셨고, 거동이 불편해 늘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제게 문을 열어준 분이 그들의 친척인 70대 노수련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이였습니다.

수련생의 노모는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도 대법을 배운 적이 있었지만 딸이 박해를 받으면서 법공부를 중단했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70대 노수련생은 이전에 병엽 상태가 나타나 가족들에게 강제로 병원에 끌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는 말을 명확하고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했고, ‘전법륜(轉法輪)’ 책에 있는 글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해 법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저를 보내 노수련생들의 법공부를 돕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법공부를 하자고 제안하자 그들은 무척 기뻐했고, 우리는 즉시 법공부 시간을 정했습니다. 물론 글자를 잘 모르는 두 수련생과 함께 법공부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그 과정을 견뎌냈고 박해받던 수련생이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수소문 끝에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다른 수련생의 소식을 듣고 그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자주 함께 협력했고, 그녀에게는 제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점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몸에 심각한 병엽 가상이 나타났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그녀를 엄격하게 감시하는 바람에 그녀는 정상적인 수련 환경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와야 할 책임감을 느꼈지만, 그러려면 그녀를 집에서 데리고

말했습니다. “공주들 곁에는 다 못된 새엄마가 있지만 공주들은 개의치 않거든요. 그들은 개의치 않고 새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이의 대답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모, 이모도 공주가 되고 싶어요?” 저는 멍칫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한참 멀었지.” 그때 아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며 낭랑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주는 공주예요, 품격이 남다르죠!” 그중 ‘품격이 남다르다’라는 말을 아주 크고 또렷하게 말해서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 사부님께서 아이의 입을 빌려 제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부님께서는 제가 ‘남다른 품격’을 갖추길 바라셨습니다!

아마 수년간 쌓인 은원 때문인지, 깨닫고 나서도 집착심을 바로 닦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A의 문제를 언급할 때면 저도 모르게 몇 마디 거들곤 했습니다. 가끔 남의 시비를 논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 마음속에서는 이미 부정적인 견해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저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안배를 해주셨습니다.

중공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후 몇 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대규모 박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수련생이 불법적으로 납치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적지 않은 수련생이 잇달아 병업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일부 법공부 팀도 해산됐습니다. 게다가 전염병 봉쇄까지 겹치면서 수련생들 간의 연락이 줄어들었고, 아예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0년 가을과 겨울이 교차할 무렵, 한동안의 전염병 봉쇄가 막 끝났을 때, 저는 인터넷에서 한 수련생이 불법적으로 실형을

하지만 수련생이 집착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내가 본 수련생의 집착이 무엇인지, 고통을 초래한 사람 마음이 무엇인지 직접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종종 이런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

사람 마음이란 이토록 복잡한 것이어서, 어떤 수련생이 늘 같은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처음의 동정심이 점차 냉담함과 무감각으로 변했다. 상대가 또 나와 이런 방면의 일을 교류하면 나 자신은 심지어 조금 짜증이 났다. 이럴 때면 상대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비위를 맞추는 좋은 말만 하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피했다.

이런 ‘거짓’은 주변이 평온해졌다고 느끼게 만들었고, 자신도 마치 매사에 사람을 이해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여전히 ‘오만’과 ‘자만’이라는 이 두 가지 나쁜 것에 농락당했음을 발견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상대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점이 실은 나 자신이 이 방면에서 닦아야 할 집착이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됐다. 그런데도 나는 모든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렸고 자신을 잘 안으로 찾지 않았다. 수련이 제고되는 환경은 사람 마음을 드러낼 각종 기회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인데, ‘진실하지 못함’으로 일부러 만들어낸 거짓된 평온은 그저 자신과 남을 속인 것에 불과했다.

지금 나는 주변에서 온갖 마음에도 없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경계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 당시엔 참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평한 것은 아닌가? 입으로 하는 말 다르고 마음속 생각 다른 건 아닌가? 무의식중에 상대에게 헛된 희망을 주어 통제하려 한 것은 아닌가?’ 이것들은 모두 ‘진’을 해 내지 못하고 악당의 ‘거짓’이라는 독에 당한 표현이다. 반드시 수

련의 기점에 서서 자신에게 도대체 어떤 집착이 있기에 이런 ‘진실하지 못한’ 행위가 나타나는지 잘 찾아봐야 한다.

4) 변명하고 모면하며 책임 전가하기

나는 내 어떤 방면의 집착심이 특히 강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진실하지 못함’의 또 다른 구체적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수련 중 곳곳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법실증 일을 잘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전가하며 객관적인 원인을 찾고 자기가 노력했음을 강조한다. 심성을 지키지 못해 다른 사람과 다투었을 때 자신을 억울하게 괴롭힘당한 것으로 묘사한다. 법공부 중 잘못 읽었을 때 늘 변명 한마디를 덧붙여 어색함을 무마하려 하는 등등이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고 ‘진실하지 못함’의 체현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나는 그 배후의 집착에 지배당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똑바로 인식해야만 그 배후의 집착을 잡아내고 집착을 버리며 제고할 수 있다.

한번은 딸이 정오에 내 직장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나는 별 신경을 안 써서 한 시간 일찍으로 기억했다. 결국 나는 11시에 맞춰 나갔고 한참을 기다려도 딸이 오지 않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딸이 시간을 안 지키는 몹쓸 버릇이 또 도졌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딸의 잘못을 들쭉시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잘못됐음을 의식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어쩌면 문제가 내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둘러 돌아가 다시 확인해 보니 내 자신이 시간을 잘못 기억한 것을 발견했고, 마음속으로 나 자신이 꽤 우스웠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딸을 만난 후 딸에게 이 일을 말하자 딸이 말했다. “엄마, 이건 엄마가 잘못된 거라 가볍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만약 정말 내 탓

저는 불공평한 일을 겪을 때도 안으로 찾아야 한다는 사부님 경문 속의 법을 보고는 또다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부님, 저를 수련에서 넘어뜨리려 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사람 앞에서 제가 안으로 찾아야 합니까?’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사부님께 큰 불경이라는 것을 알았고, 제 수련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1. 사부님께서 선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다

못난 저는 사부님께서 애를 태우시게 했고, 저는 사부님께서 주신 일깨움을 느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홍대한 자비로 끊임없이 제 선념을 회복시켜 주셨고, 저를 이 위험한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시며 수련인이 갖춰야 할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한번은 친척과 차를 타고 외출했는데 가는 길에 조카딸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애야, 뭘 보길래 그렇게 재밌니?”라고 묻자, 아이는 영어 뮤지컬 ‘새엄마들의 다과회’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즈니가 만든 백설공주, 라푼젤 같은 애니메이션에는 공주 곁에 항상 그녀들을 괴롭히는 새엄마가 있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는 이 영어 뮤지컬에서는 새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공주들을 얼마나 ‘선하게 대하고’ ‘교육’했는지 늘어놓는데,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어서 조카가 말했습니다. “이 공주들은 정말 착해요. 나도 공주가 되고 싶어요!” 제가 “왜 공주가 되고 싶은데?”라고 묻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공주들은 착하고 용감하고 자비로우니까요.” 제가 “자비로운 거랑 착한 건 다른 거야?”라고 묻자 아이는 “달라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라고 묻자 아이는 이렇게

그녀가 다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저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에 가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온 후에도 여전했고, 단지 행동이 더 교묘해졌을 뿐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녀와 툭 터놓고 이야기해 보려 했지만 그녀는 번번이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녀의 교활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혐오감이 일었습니다. 결국 중공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 제가 다시 한번 그녀로 인해 협력하던 항목에서 쫓겨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녀와 어떤 왕래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한동안 제 심성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수련 환경이 복잡하다고 여겼고, 수련생들 간의 소모전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많은 수련생의 수련 상태에 불만을 품었고, 다들 수련인 같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이게 수련인인가? 이게 수련하는 무리인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고, 수련생들에게 실망감이 가득해져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는 매우 위험하며, 결국 사부님과 법에 대한 수련인의 바른 믿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이 저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타격이 됐고, 제 내면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기는 제 수련에서 거의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제가 불법적으로 구금됐을 때도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않았고, 저를 박해하는 경찰을 마주했을 때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감정은 오랫동안 원망, 질투 등 악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저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였다면 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나 자신의 평소 모습을 생각해 보니 정말로 그랬고, 명분이 있으면 남을 깎아내렸다. 만약 자신에게 이치가 없으면 책임을 각종 ‘어쩔 수 없음’으로 떠넘기며 가볍게 나 자신을 용서했으니, 딸이 나에게 ‘이중잣대’라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내 탓은 전혀 하지 않고 모두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어찌 내가 안으로 찾을 수 있겠는가? 이 ‘거짓’은 매번 ‘그럴만한 사정’ 배후의 집착을 보호해주었으니, 이 심성이 어떻게 제고할 수 있겠는가?

3. ‘진’을 닦는 것과 참수련

수련인이 만약 ‘진’을 닦지 않고 ‘거짓’의 해악을 이성적으로 똑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거짓’의 겉모습에 눈이 멀어 수련 제고의 강력한 걸림돌이 된다. 특히 공산당 당문화에 흠뻑 젖은 중국 사회 환경 속에서 ‘거짓’의 표현은 곳곳에 존재한다. 그것은 수련인으로 하여금 ‘가짜 진’을 ‘진짜 진’으로, ‘위선’을 ‘참된 선’으로, ‘가짜 인’을 ‘참된 인’으로, ‘거짓 수련’을 ‘참수련’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수련인의 노력이 ‘거짓’ 위에 세워졌을 때, 사람 마음을 내려놓는 수련의 홀가분함과 대자재(大自在)는 모든 것을 포기한 후 하소연할 곳 없는 억울함, 원망, 절망으로 변하고 만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부님께서 각종 환경과 사건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서야 나는 자신에게 ‘진’이 결여돼 있음을 깊이 인식했다. 공산사령이 중국인에게 끼친 해독과 수련인에게 끼친 해독을 깊이 절감한다.

이 글을 써서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한다. 층차에 한계가 있으니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란다.

수련생 구출 과정에서의 신기한 일, 산산조각 났던 뼈가 다시 맞춰지다

글/ 중국 동북 지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몇 년 전 수련생을 구출할 때 있었던 신기한 일 하나를 이야기하려 한다.

그해 우리 지역 수련생 두 명이 출장길에 묵던 여관에서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중 G 수련생은 예전에 동베이에서 가장 악랄한 감옥에 몇 년간 불법 구금된 적이 있었고 직장도 잃은 상태였다.

G의 아내인 H 수련생이 우리를 찾아와 모두 함께 모여 앉아 어떻게 G 수련생을 구출할지 교류했다. 젊은 여성 수련생 두 명이 내게 가족과 협력해 사람을 요구하러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나는 속으로 떨려서 경찰을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두 사람이 내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면 당신들이 가면 되겠네요”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계속 내가 가야 한다고 고집했고 다른 수련생들도 격려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사심과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지 않았다.

교류 중 H 수련생은 G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현재 한 호텔 3층에 감금돼 있는데, G가 방에 들어간 직후 감시하던 경찰이 몸을 돌린 틈을 타 창문으로 도망치려다 떨어졌고 부상이 매우 심해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나서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G는 계속 단식을 하고 있었다. ‘610’ 우두머리는 G의 아버지를 찾아가 G가 아주 잘

진실한 마음으로 수련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수련한 지 20년이 넘는 대법제자입니다. 법을 얻은 후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의 탄압 이후, 저는 주변 수련생들과 함께 사부님의 정법 발걸음을 바짝 따르며 세 가지 일을 착실히 해내고 세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수련 속에서 저도 모르게 수련을 느슨히 하며 일만 하고 마음을 닦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오랫동안 한 고비에 맴돌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소중한 수련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심리적 과정을 정리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남은 길을 잘 걸어가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려 합니다.

일의 발단은 알고 지낸 지 오래된 A 수련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강제노동 박해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부터 계속 저에게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말로 저를 깎아내리고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저의 수련과 법을 실증하는 일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생과 저의 연락을 끊어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했고, 수련생과 저 사이를 이간질해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저를 따돌려 제가 수련생들 단체에서 벗어나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게 하려 했습니다. 사정을 아는 다른 수련생들도 그녀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가 고의로 다른 수련생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날 밤 G 수련생이 자다가 한밤중이 됐을 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몇 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G는 사부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고 움직이기만 하면 아파서 온몸이 땀범벅이 됐는데 어떻게 간다는 말인가? 그는 사부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안간힘을 써서 일어나 앉자 온몸의 뼈에서 푹푹 소리나고, 산산조각 났던 뼈가 그 자리에서 다시 맞춰졌다. 두 젊은 경찰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G는 문을 열고 1층으로 갔다가 정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1층 화장실 창문으로 기어 나갔다. 창문은 바깥 지면에서 꽤 높았는데 마침 아래에 자전거 한 대가 있어서 그는 자전거를 밟고 바닥으로 내려와 베개 밑에 있던 돈을 손에 들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 기사가 한참 차를 몰다가 G가 내복 차림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차로 갈아타시죠”라고 했다. G 수련생이 돈을 줬지만 기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G는 사부님의 안배하에 성공적으로 마굴에서 탈출했다.

대법은 초범적이다. 이런 신기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사부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자는 사부님께서 제자를 구하시는 일이 쉽지 않고 중생을 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갈수록 더 깊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다년간의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내 주변 수련생들의 정념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우리 함께 정진해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있고 아무 일도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보니 G는 눈동자만 굴릴 뿐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사부님께서 “그의 일이 바로 당신의 일이며, 당신의 일이 바로 그의 일이다.”(각지 설법 2-2002년 워싱턴DC법회 설법)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자신이 대법제자이니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해서는 안 되며, 적어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요구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알았어요, 제가 가족과 협력해 석방을 요구하러 갈 테니 여러분은 모두 주변에 가서 정념을 발해 줘요”라고 말했다. 수련생들은 알겠다고 했다.

이튿날 나는 용기와 정념을 내어 G의 부모 및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주변과 로비에 수련생들이 잔뜩 앉아서 정념을 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가족과 함께 응급실에 가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의사를 찾아 물어보니 병원을 옮겼다고 했다. 어느 병원이냐고 묻자 모른다고 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다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고, 내게 방금 생겨났던 약간의 정념은 또다시 두려움으로 대체됐다. 나는 한쪽에 앉아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 잡고 법에서 문제를 사고하려 노력했다. 갑자기 한 수련생이 G가 어느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생각났다고 했다. H 수련생이 그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 정말 그 병원에 있었고, G 수련생은 4층의 철문이 달린 병실에 갇혀 있었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부님께서 가지(加持)하시고 도와주신 것이었다! 우리는 이튿날 그 병원에 가서 석방을 요구하고 함께 협력해 정념을 발하기로 했다.

이튿날 나는 스쿠터를 타고 일찍 병원에 도착했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수련생이 한 명도 없었고 위아래 층을 찾아봐도 수련생이 한 명도 없었다. 어찌 된 일인가? 전원 결석이었다. 이때 G 수련생의 부모와 아내가 도착했다. G의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내가 부축하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G의 아버지는 “당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마세요. 여기 경찰이 있으니 우리끼리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했다. 나는 한쪽으로 슬쩍 비켜섰다. 이때 지나가던 한 수련생이 버스에서 내가 스쿠터를 타고 병원에 온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인지 살펴보러 왔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가족과 협력해 정념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은 위층으로 올라간 뒤 병실 문을 두드리며 G의 이름을 부르고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들은 완전히 당황해 이곳을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었다.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나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나는 말했다. “보세요, 이 가족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들은 정식 직장이 있었는데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이유로 저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고 직장도 잃었어요. 나온 후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출장 가서 여관에서 자고 있는데 또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 청년이 경찰에게 무슨 죄냐고 묻자 경찰은 너 스스로 알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청년은 경찰의 박해에 저항하다 위층에서 뛰어내렸고 온몸이 다 부서졌어요. 보세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거동도 불편하신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도 못하게 하고 펄펄 날던 청년을 또 중상을 입게 만들었으니, 아이고, 너무 참혹합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인데 당신들 경찰은 능력이 있으면 나쁜 놈들을 잡아야죠.” 구경하던 군중은 모두 분개했고 누군가는 저들을 고소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G의 어머니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기절하려 했고 사람들은 노인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의사가 사무실에서 나와 구경하러 왔고 나는 또 의사에게 진상을 알렸다. 의사도 분개하며 바로 다가가 G의 어머니에게 기분이 어떤지 심장은 어떤지 물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내가 그녀에게 이 가족의 사연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눈물까지 흘렸다. 경찰에 의해 불러 온 ‘610’ 우두머리는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G의 아내 H에게 고함을 지르며 협박했다.

이튿날 우리가 함께 교류할 때 H 수련생이 달려와서 말했다. ‘610’ 우두머리가 G의 아버지를 불러 G 수련생이 어제 한밤중에 도망갔다고 했다는 것이다. G의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다. 나는 말했다. “그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G 수련생이 그렇게 중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도망을 잡니까?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장기적출을 하는 자들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의 아버지가 다시 ‘610’ 우두머리를 찾아갔고, 그들은 정말 병원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G의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영상에는 G 수련생이 위층에서 내려와 정문으로 갔다가 병원 정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다시 병원 1층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승리의 대탈출, 그것은 진짜였다!

나중에 우리는 G 수련생을 만나고 나서야 당시 가족이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요구할 때 그가 병실 안에서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중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병실을 청소하러 와서 그를 감시하던 두 젊은 경찰을 훈계했다.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데 물 한 모금도 안 주다니요.” 젊은 경찰은 압수했던 G의 돈에서 100위안을 꺼내 물 한 병을 샀고 남은 돈은 G의 베개 밑에 두었